

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본격 착수

-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 추진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호주 인프라·교통·지역발전·통신·체육·문화부와 협력하여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*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* 저·무탄소 연료,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2개 이상의 항만과 항만 사이 물류 운송 전(全)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

우리나라와 호주는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양국 간 ▲친환경 연료 공급망 분석 ▲항만별 수출·입 화물 및 수요 동향 조사 ▲연료공급을 위한 항만 인프라 체계 연구 ▲운항에 적합한 선박의 종류 평가 등 녹색해운항로 선정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.

이번에 착수하는 사전타당성 연구는 지난 2월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단계로 추진되는 절차이다. 그간 양국이 협업하여 사전타당성 연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*과 연구기관** 등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.

* HMM, 현대글로벌비스, 팬오션, 에이치라인해운, 포스코플로우, 지마린서비스

** 한국선급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, 부산항만공사, 울산항만공사, 한국해양수산개발원

이후,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 선정된 항로를 대상으로 경제·기술·제도 등 타당성 연구를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친환경 선박 운항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호주는 우리나라에 선박 연료를 비롯한 청정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”라며, “이번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최적의 항로를 선정하여, 2029년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를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의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해사안전국 | 책임자 | 과 장 | 남창섭 (044-200-5830) |
| | 해사산업기술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인성 (044-200-5834) |

□ 추진 경과

- 한-호주 양국은 국제해사기구(IMO) '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' 목표 달성 이행방안으로 '녹색해운항로' 구축을 추진 중임
 - 호주 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-해양수산부 간 업무 협의('23.12, COP28)
 -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MoU 협력사항 실무 논의('24.4, 싱가포르 해사주간)
 - 주한 호주대사-해수부 해사안전국장 간 녹색해운항로 협력 논의('24.5)
 -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MoU 체결 실무 논의('24.10, MEPC82)
-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장관급 양해각서 체결('25.2)

□ 주요 협력사항

- (녹색해운항로 구축) 양국은 국제해사기구(IMO)의 '2050 탄소중립'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해운항로를 구축·확대 등을 공동으로 노력
- (국제규범 제정 상호협력) 양국은 국제해사기구(IMO)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협력하여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
- (친환경 연료공급 촉진) 양국 항만에서 친환경 연료공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항만 간 기술정보 교류 등 협력방안 모색
- (관련기관 간 교류·협력) 녹색해운항로, 친환경 연료공급 및 해양산업 디지털화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간 교류·협력 지원

□ 향후 계획

| 추진 내용 | 시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전타당성 연구 | '25.下 ~ '26.上 |
| ② 경제성·기술적·제도적 타당성 연구 및 로드맵 수립 | '26.上 ~ '26.下 |
| ③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 공동 이행 | '26.下 ~ '28.下 |
| ④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시범 운항 | '29.上 |

* 호주와의 협의에 따라 추진 내용 및 시기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